

평화 기원 미륵사지탑등 광화문광장 환히 밝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막 올라

불기 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미륵사지탑등이 광화문 일대를 환히 밝혔다.

연등회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지난 4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륵사지탑등(燈)’ 점등식을 봉행했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한 미륵사지 탑등은 광화문을 환하게 밝히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주요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진관사, 수국사, 육전암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 신도들도 함께 지리해 봉축행사의 시작을 자축했다. 탑등은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찬탄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오늘

밝힌 등불로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을 이루고 미래를 향한 성실한 실천이 뒤따라 모두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희망한다”며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지진으로 충격과 고통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밝힌 소중한 빛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의 정진으로 밝힌 등불이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축원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과 국민행복 증진을 기원했다. 점등식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은 탑돌이를 진행했다. 탑돌이를 하는 동안 사부대중은 한 목소리로 석가모니불 정군을 하며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했다.

한편 봉축점등식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종교지도자로서 가르침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들과 같이 해왔고 앞으로 같이 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미륵사지탑 점등식을 봉행, 서울 광화문광장이 환하게 밝아졌다. ‘미륵사지탑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이날 점등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신재호 기자

네팔 신두팔촉 5000가구 물품 지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손길 닿지 않는 땔람치마을 투입 본지 이경민 기자 등 활동 연장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구호 손길이 닿지 않는 네팔 신두팔촉 지역을 찾아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선다. 네팔 대지진 사망자 수가 5000명(4월30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27일 네팔 현지에서 파견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스님)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신두팔촉 지역을 긴급구호 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 신두팔촉은 카트만두에서 60km 떨어진 곳으로 지진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카트만두 수도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걸리는 외곽에 위치한 탓에 구호물품 및 인력 지원 등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긴급구호봉사단은 현지에서 신두팔촉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생수 및 의약품 등의 구호물품 구입과 현지인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봉사단은 현지 도착 이후 카트만두 시내와 박타푸르 등을 둘러보고 현지인들과 분주히 접촉하며 신두팔촉이 지진의 진원지에서 떨어져 있어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따라 봉사단은 이 지역에 선발



대를 파견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긴급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한국에 2차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긴급구호봉사단장 각평스님은 “구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두팔촉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15만~20만 달러의 구호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긴급물품 조달을 위해 선발대를 투입한 데 이어 지속적인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단에서는 봉사단 활동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구호물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신두팔촉 땔람치 마을 5000가구에 쌀과 소금, 라면 등으로 구성된 15만 달러(한화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네팔에 지부를 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재네 팔한인회장 영봉스님이 운영하는 세종학당 등 교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구호활동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가 지원 및 물품 조달 등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네팔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기사3면

네팔=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선거폐해 없애고 사법제도 개선하자

4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신뢰받는 불교,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종단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같은 불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제4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지난 4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4차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원·율원·강원·비구니 스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신도포교단 체장 등 111명이 참석했다. 4차 대중공사는 사회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불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찾는 자리였다.

모듬토론에서는 수행풍토의 진작, 승가교육 체계 정립,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선거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종단 내 인사제도와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에 참가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종단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브리핑에서는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스님이 ‘종단불신, 원인과 논의방향’을 주제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종단에 대한 불신 - 그 역사적 원인과 맥락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단불신의 원인을 진단했다. 또 연운사 주지 원명스님, 상주사 주지 도연스님, 선운사 정책특보 종고스님 등을 100인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3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사찰재정 공개 방안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2014년 중앙총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공개했다. 4월12일 지역 최초로 출범한 ‘전북불교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임재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 철산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은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지혜를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빠아픈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종단과 불교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발전적인 공의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모아진 공의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4면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네팔 지진피해 복구 긴급구호 모연

대한불교조계종 아름다운동행과 불교신문사는 지난 4월25일 부처님의 나라,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로 절망에 빠진 네팔 국민들을 위한 재해제한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501-04-125198(불교신문) 동입 301-0171-2448-11(아름다운동행)

☎ 불교신문사·아름다운동행



KGC 인삼공사

기대하세요! 건강한 관절의 힘!

튼튼하고 건강한 관절을 위해
이제 6년근 홍삼과 초록입홍합을 만나세요

정관장 루마엑스



-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초록입홍합추출오일: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오월, 사랑이 보입니다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루마엑스 10% 할인 · 행사기간 4/24~5/15